

계약업무 개선노력 결실 잇따라

전북교육청, S2B 청렴계약 · 조달서비스 이용 우수기관 선정 등

계약실무 편람은 지방공무원 행정연구회 ‘최우수 보고서’ 선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올해 3월부터 청렴도 향상과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추진한 계약업무 개선 노력이 잇단 결실을 맺고 있다. 12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먼저, 지난 5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정정보처리장치인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S2B)에서 ‘제12회 S2B 청렴

계약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다. 이는 기관별 S2B 이용 실적 및 전년 대비 증감률 평가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받음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계약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어 지난 11월에는 조달청에서 수여하는 조달서비스 이용 우수기관으

로 선정됐다. 전년 대비 공공조달 계약 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청렴계약·재정 신속 집행,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조달청 간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 결과다. 이와 함께 계약업무 담당자들의 직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분청 재무과 계약담당이 주축이 돼 제작한 ‘계

약실무편람’이 2024년 지방공무원 행정연구회 최우수 보고서로 선정됐다. 계약실무편람은 사업계획 수립부터 계약, 대금 지급까지 편람에 있는 대로 따라 하면 누구나 손쉽게 업무를 볼 수 있고, 또 첫 계약실무편람이라는 점이 창의성, 실행 가능성, 파급 가능성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서거석 교육감은 “계약업무 담당자들이 묵묵히 일하면서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업무 담당자들의 공정하고 청렴한 계약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일반직 공무원 데이터 활용 역량강화 교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일반직 공무원 대상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16일, 19일, 20일 3일간 6차례에 걸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에서 진행된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 10월 21일과 28일 분청,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일반직 공무원 중 희망자 1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후 추가 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어 이번에 학교까지 확대하게 됐다. 교육 내용은 △데이터 리터러시 함양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능력 강화 △실무 데이터 활용 능력 향상 등이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데이터 기반 행정의 중요성과 공공데이터 활용 방법을 다루고, SGIS(통계지리정보서비스)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 실습과 생성형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방법도 소개할 예정이다. SGIS는 통계와 지리 정보를 융합하여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분석하고, 생성형 AI는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데 중점을 둔 인공지능 기술이다. 조철호 행정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행정의 과학화를 실현하고 정책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호텔경영학과 영어스피치 경진대회

영어스피치 경진대회가 지난 11일 전주대학교 지역혁신관 호텔식음료실 습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12일 전주대에 따르면 호텔경영학과에서 주최한 이번 대회는 호텔서비스 및 문화의 다양성 등 전공과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 학과의 해외취업 경험과 역량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총 8개 팀이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한 가운데 싱가포르, 베트남 등 해외취업을 경험한 학생들과 이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함께 열린 경쟁을 벌였다. 전주대 호텔경영학과는 현재까지 총 369명의 해외취업 성과를 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글로벌 호텔리어로 성장하기 위한 실무지식과 외국어 능력을 뽐냈다. 특히 올해는 2년 연속 S등급을 받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투게더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의미를 더했다. 그 결과 영예의 총장상은 장재성 학생이 차지했다. 그는 해외호텔 취업 경험을 통해 전문 호텔리어로서의 실무지식과 영어능력을 크게 향상시킨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31일까지 창조나래 3층에서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전시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사진이 전시된 모습이다.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사진으로 만나다

전북자치도교육청, 31일까지 창조나래 3층서 전시회 개최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을 사진으로 만나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31일까지 창조나래 3층에서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작년 사업을 추진한 13개 고교의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 모습을 사진으로 만나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고창 자유고는 창의 융합 수업 및 자기주도학습 공간을, 무주 설천고는 모듈형 협력 학습 공간을, 전주 성심여고는 휴식 및 모듈 학습이 가능한 융합형 수업 공간을 조성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수·학습 활동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특히 모든 학교의 공간 구성은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학습 공간의 활용성, 동선의 효율화를 극대화했다. 유호선 중등교육과장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발맞춰 학교 공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왔다”면서 “학점제형 공간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아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꿈과 뜻 찾으러’ ... 우석대, ‘우석 글쓰기 대회’ 시상식

대상-이민재 ‘종이 한장의 무게’ 최우수상-쑤티칸리 외3명 수상

우석대학교 교양대학은 12일 대학 본관 2층 총장 집무실에서 ‘제13회 꿈과 뜻을 찾는 우석 글쓰기 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박노준 총장과 조법중 교양대학장, 최정숙 교양교육지원센터장, 수상 학생 등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에는 내국인 학생 198명과 외국인 학생 11명이 참여해 이민재(간호학과 1년) 학생이 출품한 ‘종이 한장의 무게’가 창의적 사고와 선풍적인 주제, 글의 완성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에 선정됐다. 또한 베트남 국적의 쑤티칸리(경영학과 4년) 학생 외 3명은 최우수상을, 정민서(물리치료학과 1년) 학생 외 5명은 우수상을, 김지연(간호학과 1년) 학생 외 9명은 가작을, 이현지(태권도학과 1년) 학생 외 11명은 특별상을 받았다.



우석대학교 교양대학은 12일 대학 본관 2층 총장 집무실에서 ‘제13회 꿈과 뜻을 찾는 우석 글쓰기 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박노준 총장과 조법중 교양대학장, 최정숙 교양교육지원센터장, 수상 학생 등이 참석했다. 박노준 총장은 “이번 글쓰기 대회를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며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발전시키는 소중한 시간이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글쓰기 활동과 자기 계발을 통해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키워나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초경량 고압수소탱크 개발·상용화 성공 ‘주목’

전북대 이종희 교수, ‘복합재료 대상’ 수상 SCI 논문 520여편 발표, 350편 상위 10%



전북대학교 이종희 교수(대학원 나노융합공학과)가 한국복합재료학회에서 수여하는 ‘복합재료 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복합재료 분야에서 최고의 공헌을 이룬 연구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이날 전북대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 30여 년간 복합재료 연구를 통해 국내외 학문 발전과 산업적 상용화에 크게 기여해왔다. 특히, 복합재료를 활용한 700기압 초경량 고압수소탱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며 수소연료자동차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었다. 이 기술은 현재 상용화돼 국내 수소연료자동차에 탑재돼 있다. 뿐만 아니라, SCI(과학인용색인) 등재 논문 520여 편을 발표하며 연구 활동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장은성 기자

이 중 350여 편의 논문이 연구의 독창성과 탁월성을 인정받아 세계 최우수 상위 10%에 포함됐다. 이 교수의 연구는 약 4만8,000회의 인용 수를 기록하며, h-index가 105에 달하는 등 복합재료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교수는 창업 활동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벤처기업 ㈜아레스는 대용량 고효율 수전해 시스템을 개발해 국내 최초로 해외 수출에 성공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딥테크 탑스 기업으로 전북 지역에서 최초로 선정되며, 수전해 신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현재 전북대 나노탄소기반에너지소재연구단(RLRC) 단장을 맡고 있는 이 교수는 이번엔 전북대 석좌교수로도 선정돼 활발한 연구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 교수는 “앞으로도 복합재료 연구와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후학 양성과 기술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기업 신기술 발굴·자문 통한 기업 개발제품 인증 취득 지원

전북대 오종현 교수, 산업기술유공 국무총리 표창



전북대학교 오종현 교수(기계설계공학부, LINC 3.0 사업단 부단장·사진)는 지난 11일 열린 2024년도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에서 산업기술진흥유공 신기술실용화진흥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주관하는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는 신기술 개발 의욕 고취와 인증제품의 공공기관 구매 촉진 등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행사다. 올해로 28회를 맞았다. 12일 전북대에 따르면 오 교수는 기업의 신기술 발굴 및 기술 자문 등 활발한 산학협력 활동을 통해 우수 기술 개발제품 인증지원사업을 선도적으로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그가 부단장으로 활동 중인 LINC 3.0 사업단은 2022년부터 정부 인증 제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발굴해 재직자 교육과 자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맞춤형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패키지형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교수들이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옴부즈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기업 맞춤형 기술개발과 컨설팅을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전북대만의 차별화된 산학협력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그 결과, 김제의 C사를 포함한 도내 9개 기업이 NEP(신제품인증), NET(신기술인증), 녹색인증을 취득했다. 이는 지역에서 유일하게 신기술인증(NET) 및 신제품인증(NEP) 취득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대학으로,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험 규격 마련, 신청 서류 작성, 발표평가 준비 등 전 과정을 컨설팅하는 등 인증 이후 초기 공공구매 판로까지 지원하고 있다. 오 교수는 “이번 표창은 산업융합 촉진을 가로막는 규제를 해소하고, 또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려는 격려의 뜻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LINC 3.0 사업단장인 송철규 교수는 “LINC 3.0 사업단은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학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기술 지원과 인증 취득을 통해 지역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 산학협력의 중심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 오송지 등 계절별 수질, 부영양화 지수 변화 분석

전북대 노수영 석사과정생, 한국지하수토양 환경학회 ‘우수상’



전북대학교 노수영 석사과정생(환경에너지융합학과·지도교수 진성욱)이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가 주최한 ‘2024 KGSSE 논문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노수영 석사과정생은 ‘전주시 오송지와 덕진연못의 계절별 수질 및 부영양화 지수 변화’라는 주제로 자연호인

오송지와 인공호인 덕진연못을 대상으로 계절에 따른 수질 변화와 부영양화 정도를 비교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작은 수계에서 발생하는 계절별 수질 변화와 부영양화의 특성을 규명하고, 향후 효율적인 수질 관리와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